

##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성과 신화적 의미\*

—출산 화소의 특이성을 중심으로—

정제호\*\*

### [요약]

본고는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성 방식에 대해 살핀 연구이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일반적인 서사무가와 달리 대상신인 명진국따님애기보다 그 반대에 서 있는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술이 길게 이어져 있는 특성을 보인다. 전체적인 전개에 있어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가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는 하나의 신격좌정담으로서의 구성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하다. 때문에 정작 〈삼승할망본풀이〉의 주인공인 명진국따님애기는 그 내력이 간략하게만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궁따님애기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녀의 출산 방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동해용궁따님애기는 명진국따님애기와 달리 겨드랑이로 출산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만다. 이 실패 때문에 생불왕이 되지 못하고 저승어명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출산 방식은 여러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의 출생’과 관계가 있다. 같은 지역에서 전승되는 〈초공본풀이〉를 비롯하여, 알영, 석가모니의 출생 등에서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시도처럼 겨드랑이로 탄생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시도한 겨드랑이로 출산은 일종의 신화적 출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삼승할망본풀이〉는 인간의 출생을 담당하는 산육신에 대한 서사이다. 그렇다보니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아닌 명진국따님애기가 산육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4038127)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결국 <삼승할망본풀이>는 인간의 출생을 담당하는 산육신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출생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신의 출생부터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의 출생에서 인간의 출생으로의 이행이 담겨 있는 신화가 바로 <삼승할망본풀이>인 것이다. 그래서 <삼승할망본풀이>는 일반적인 신화 서술 방식과 달리 대상신이 아닌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가 초반부에 길게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삼승할망본풀이>, 서사 구성, 출산 화소, 신의 출생, 신화적 출산

## I. 논의의 출발

<삼승할망본풀이>는 아이를 점지해주고, 출산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산육신(産育神)의 좌정담이다. 산신(産神)에 대한 신앙 차원의 의례가 다양하게 전승되는 것과 달리 서사무가로서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삼승할망본풀이>의 존재는 특별하다 하겠다. 더욱이 산육을 담당하는 신에 대한 본풀이라는 점 이외에도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창세신화에 주로 나타나는 ‘꽃피우기 경쟁’ 화소가 등장하여 일찍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이렇게 <삼승할망본풀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여러 연구 성과를 집적한 바가 있다. <삼승할망본풀이> 연구는 크게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의와 관련하여 <삼승할망본풀이>의 의미를 읽고자 한 연구가 있다. 이수자<sup>1)</sup>와 김은희<sup>2)</sup>의 연구가 대체로 여기에 속한다. 다만 이들 연구는 신화 텍스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보다는 의례로서의 ‘불도맞이’에 집중하면서, 본풀이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는 다소 소홀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신들의 대립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여신 간의 투쟁에 집중하면서도 <삼승할망본풀이> 전반에 대한 논의를

- 
- 1)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이수자,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 『이화어문논집』 14(이화어문학회, 1994).  
이수자,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불도맞이 및 생불할망본풀이와 관련하여-』, 현용준박사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제주도언어민속논총』(제주문화, 1992).
- 2) 김은희, 『제주도 <불도맞이>와 서울 <천궁불사맞이> 비교』, 『한국무속학』 30(한국무속학회, 2015).

진행한 김현선<sup>3)</sup>과 〈천지왕본풀이〉의 경쟁신화소와 비교 검토를 수행한 권복순<sup>4)</sup>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권복순의 연구는 유사성에 기초한 단순 비교에 머물렀다. 그에 비해 김현선은 대립에 집중하면서도 〈삼승할망본풀이〉 서사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해석들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대립하는 두 신격, 즉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궁따님애기가 갖는 신화적 성격에 대해 논하였는데, 본고의 지향과 일치하는 지점들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셋째, 〈삼승할망본풀이〉의 주요 소재인 ‘꽃’을 중심으로 다른 신화나 타 장르와 견주어 살핀 논의가 있다. 생불꽃을 중심으로 여타 장르와 비교 작업을 수행한 현승환,<sup>5)</sup>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과 비교 검토한 유효철,<sup>6)</sup> 현상계를 위한 생명의 공간으로 〈삼승할망본풀이〉의 꽃을 이해하고자 한 김창일<sup>7)</sup>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꽃’과 ‘서천꽃밭’을 공유하는 작품들을 견주어 논하고 있지만, 대체로 유사성을 도출하는 것 이상의 논의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적 기원을 ‘당신(堂神)본풀이’에서 찾자 한 연구도 있다. 강정식<sup>8)</sup>과 이현정<sup>9)</sup>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는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중 당신본풀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 비교함으로써, 일반신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에 대해 논하였다.<sup>10)</sup> 이들

3)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나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17(국립민속박물관, 2005).

4) 권복순,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인물의 기능과 그 의미-신직차지하기 경쟁신화소를 중심으로-』, 『어문학』 116(한국어문학회, 2012).

5) 현승환,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97).

6) 유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7)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11(한국무속학회, 2006).

8) 강정식,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발표논문, 2003).

9) 이현정, 『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할망본풀이〉와 〈일렛당본풀이〉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0) 이밖에 여성 신화로서의 의미를 다룬 연구와 신화에 나타난 도민의식을 추출하고자 한 연구들도 주목할 만하다.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한국언어문학회, 2006).  
 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9(한국구비문학회, 1999).

연구를 통해 제주도 신화의 조종(祖宗)이라 할 수 있는 당신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삼승할망본풀이>가 다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무가를 둘러싼 핵심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삼승할망본풀이>가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나 성격은 여전히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격과 연관되는 작품의 본질적 의미나 제의적 구성과 구조 문제 등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또한 유사 신화가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여기에 대한 탐색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삼승할망본풀이>의 문제들을 밝히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이 질문들을 통해 <삼승할망본풀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가. 왜 <삼승할망본풀이> 서사에서 대상신인 명진국따님애기가 아닌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
- 나. <삼승할망본풀이>가 마마신의 본풀이인 <미누라본풀이>와 서사적으로 연결되는 맥락을 갖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 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선신과 악신이 대립하고, 그 결과로 산육신과 질병신으로 좌정하는 서사는 독자적인 것일까?

먼저 ‘가’는 <삼승할망본풀이>의 신격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명 산육신에 대한 무가이다. 그럼에도 서사의 시작부터 중반까지 그 중심에는 산육신이 아닌 저승어명으로 좌정하는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자리해 있다. 오히려 삼승할망인 명진국따님애기가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에 끼어든 형국이다. 일반적인 서사무가가 대상신의 탄생<sup>11)</sup>부터 신격 좌정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을

현승환, 『삼승할망 본풀이에 나타난 도민의식』, 『제연 창립 20주년 기념회』 7(제주대학교 제주도문제연구회, 1985).

11) 대상신의 탄생 혹은 그의 부모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고려할 때, 〈삼승할망본풀이〉의 구성은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두 신격의 대립적 구도에 집중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서사 구성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삼승할망에게 패배하고 물러나는 악신으로서의 면모만을 살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해용궁따님애기 서사를 통해 〈삼승할망본풀이〉가 제시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아니라 명진국따님애기가 삼승할망으로 좌정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출산 방식의 차이에 있다. 겨드랑이에서 아이를 꺼내려고 했던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달리, 명진국따님애기는 적합한 출산 방식까지 습득한 후 인간세상으로 내려온다. 그렇기에 산육신의 지위를 명진국따님애기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때 보이는 출산방식의 차이를 단순히 무능력한 동해용궁따님애기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본다면 두 신격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피기 어렵다. 이 차이는 오히려 신과 인간의 출생이라는 〈삼승할망본풀이〉를 관통하는 신의 직능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출산 방식의 차이를 통해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적 성격을 논의하고자 한다.<sup>12)</sup>

다음 ‘나’는 〈삼승할망본풀이〉를 비롯한 제의 구성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는 하나의 본풀이로서 독립성을 갖지만, 삼승할망이 등장하는 〈마누라본풀이〉라는 서사무가가 하나 더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마누라본풀이〉는 마마신의 내력을 푸는 서사무가임에도 〈삼승할망본풀이〉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삼승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가 하나의 신화로 구분

12) 이와 같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삼승할망본풀이〉는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궁따님애기가 통합되어 나타난 본풀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삼승할망본풀이〉는 하나의 무가로 채록된 경우도 있지만,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의 서사가 개별 무가로 채록된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본래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이기 때문에 그녀의 내력이 주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통합된 본풀이로서 채록된 경우에도 여전히 삼승할망인 명진국따님애기보다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가 길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없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또한 자료의 조사에 있어서도 <삼승할망본풀이>와 <미누라본풀이>가 동일한 제명 아래 혼효되어 나타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삼승할망본풀이>와 <미누라본풀이>의 경계가 모호하게 다루어지면서 두 무가의 관계 역시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문제가 동반되었다. 그렇기에 이 두 서사무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 관계의 의미를 밝히는 것 역시 <삼승할망본풀이>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는 우리 신화와 세계 신화의 비교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서사무가는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세계 신화와 견줄 수 있는 보편성을 함께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삼승할망본풀이> 역시 세계 신화와 비교 검토를 가능케 하는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서로 대립하며 산육신(생산신)과 질병신(죽음신)으로 나누어 좌정하게 된다. 이러한 두 신격의 대립과 좌정의 관계는 여러 세계 신화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의 이자나기, 이자나미 신화나 유대의 릴리스 신화 등에서 유사한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신화에서는 모두 신들의 대립을 통해 생산신과 죽음신으로의 역할이 부여되는 전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유사성을 보이는 세계 신화와 <삼승할망본풀이>를 견주어 살핌으로써 중요한 신화적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삼승할망본풀이>의 폭 넓은 이해를 위해서 세계 신화와 견주어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삼승할망본풀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산적해 있다.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음에도 선행연구에서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문제들은 단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들이므로 하나하나 차례로 다루며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작품 내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확장시키며 풀어내고자 한다. 이 문제들이 결코 작지 않아 하나의 논문을 통해 모두 포괄하여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단계적으로 논의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가’의 문제부터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아무래도 <삼승할망본풀이>라는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신격의 의미를 찾는 논의이기 때문에 선행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와 ‘다’의 문제들은 점차 외연을 확대하며 다루어야 할 부분임으로 내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본고를 통해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두 신격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신화들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더욱 명확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의 발표 이후 ‘나’와 ‘다’의 문제는 후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다.

## Ⅱ. 〈삼승할망본풀이〉의 전승 양상과 자료적 성격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삼승할망본풀이〉 자료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삼승할망본풀이〉의 경우 이현정의 논문에서 각편 현황이 정리된 바 있다.<sup>13)</sup> 하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조사된 자료집이 발행되기도 하였고, 각 자료집마다 각편에 대한 정리가 이질적인 측면이 있어 다시 한 번 각편을 현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삼승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 각편을 혼용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분명하게 각편 현황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전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고에서 활용할 〈삼승할망본풀이〉 각편은 다음의 8편이다.

〈표-1〉 〈삼승할망본풀이〉 각편 현황

	각편명	문헌	구연자	조사자	발행 시기
1	<할망본풀이>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안사인	현용준	1980
2	<구할망본>	풍속무음 下	문정봉	문창현	1994
3	<삼승할망본풀이>	제주도무속신화	진부옥	문무병	1998
4	<삼승할망본풀이>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이정자	장주근	1999

13) 이현정, 앞의 논문, 12쪽.

5	<명진국할마님본풀이> <동해용궁할망본풀이>	이용옥 심방 <본풀이>	이용옥	허남춘 외	2008
6	<명진국할마님본풀이>	양창보 심방 본풀이	양창보	허남춘 외	2010
7	<인간불도할마님본풀이> <동해용궁할마님본풀이>	고순안 심방 본풀이	고순안	허남춘 외	2011
8	<명진국할마님본풀이> <동해용궁할마님본풀이>	서순실 심방 본풀이	서순실	허남춘 외	2015

<삼승할망본풀이>의 경우 제명에 혼란이 있는 편이다. 각편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연자 혹은 조사자에 따라 <삼승할망본풀이>가 하나의 무가로 조사되기도 하고, 두 편의 개별 무가로 채록되기도 하였다. 또한 <삼승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의 내용과 제명이 혼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삼승할망본풀이>가 한 편의 무가로서 전개되는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편 조사의 특이성은 차후 과제로 미루고, 먼저 이들 각편에서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가 서사 내에서의 관계와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1번 각편의 경우 안사인이 구연한 것을 현용준이 채록하였는데, 채록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안사인본은 서사성이 풍부하다고 평가된다. <삼승할망본풀이>의 경우 서사 자체가 길진 않지만 내용 짜임이 좋은 편이다. 안사인본에서는 동해용궁따님애기의 탄생으로 서사가 시작된다. 이후 집에서 추방되어 생불왕이 되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새로이 생불왕이 되고자 하는 명진국따님애기와의 대립이 발생한다. 이 대립에서 명진국따님애기가 승리하여 ‘인간할망’이 되고,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저승할망’이 된다.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이 결과에 반발하지만, 명진국따님애기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각자의 위치로 좌정하게 된다.

이렇듯 안사인본에서 서사의 시작은 삼승할망인 명진국따님애기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 대립하는 동해용궁따님애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될 뿐이다. 전체적인 내용상에서도 본풀이의 주신(主神)인 명진국따님애기보다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일반적인 본풀이의 구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하겠다. 더욱이 이러한 양상이 안사인본뿐만 아

나라 대부분의 각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삼승할망본풀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번 경우 문창헌에 의해 필사된 각편이다. 원본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 및 필사 내력 역시 분명하지 않은 자료로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sup>14)</sup> 더욱이 〈삼승할망본풀이〉의 내용에 ‘구할망본’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삼승할망본’의 경우 〈마누라본풀이〉의 내용이 필사되어 있다.

필사본 역시 동해용궁따님애기의 탄생으로부터 서사가 시작되며, 전반적으로 안사인본과 마찬가지로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증점적으로 문면에 드러나 있다.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오히려 더 많은 비중 속에 증점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다만 필사본의 경우 안사인본보다 어린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악행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3번 자료는 진부옥이라는 여무가 구연한 것을 채록한 각편이다. 이 각편 역시 동해용궁따님애기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며, 오히려 명진국따님애기가 끼어든 형국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앞의 각편들과 구성이 유사하다.

4번 자료는 여무 이정자가 구연한 자료로 1999년에 채록되었다. 같은 책에 〈마누라본풀이〉는 고대중 심방이 1962년에 구연한 자료를 싣고 있어 조사 시기면에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 이정자본은 동해용궁따님애기가 탄생하는 부분이 생략된 채 곧바로 불효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비중 상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점은 다른 각편들과 공통된다.

5번 자료는 이용옥 심방이 구연한 자료인데, 〈삼승할망본풀이〉가 ‘명진국할마님본풀이’와 ‘동이용궁할망본풀이’로 나누어져 있다. 더욱이 책에서 두 자료 사이에 〈마누라본풀이〉가 끼워져 있어 앞의 자료들과는 다르게 채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진국할마님본풀이’에서는 명진국 따님애기

14) 이현정, 앞의 논문, 12~13쪽.

의 내력만 풀 뿐, 일반적인 <삼승할망본풀이>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정작 <삼승할망본풀이>의 내용은 ‘동이용궁할망본풀이’에 나타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볼 때, 서사가 동해용궁따님애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 구연자에 따라 아예 해당 서사를 ‘동해용궁 따님애기’의 본풀이로 명명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해용궁따님애기 자체가 하나의 본풀이로서의 지위를 갖기도 하는 것이다. 이용옥본의 경우 서사 자체는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동해용궁따님애기를 본풀이 제명으로 제시한 만큼 해당 신격을 중심 위치에 놓고 서사를 전개시키고 있다.

6번 자료는 양창보라는 남무에 의해 구연된 자료이다. ‘멩진국할마님본풀이’라는 제명 하에 <삼승할망본풀이>가 채록되었다. 이 자료의 경우 서두 부분이 동해용궁따님애기의 탄생으로 시작되지 않아 다른 자료들과 변별된다. 양창보본에서는 곧바로 멩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궁따님애기가 불도할망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는 장면으로 서사가 시작된다. 길게 이어지는 동해용궁 따님애기의 초반부 서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각편들과 변별되는 지점이라 하겠다.

7번 자료는 고순안 심방이 구연한 자료로 <삼승할망본풀이>가 불도맞이 중 ‘인간불도할마님본풀이’, ‘동이용궁할마님본풀이’로 나누어 채록되어 있다. 고순안본 역시 이용옥본과 유사하게 ‘인간불도할마님본풀이’에서는 멩진국따님애기의 내력만을 읊고, <삼승할망본풀이>의 내용은 ‘동이용궁할마님본풀이’에 제시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동해용궁 따님애기의 탄생과 불효하여 무쇠석갑에 갇혀 쫓겨나는 부분만 등장하고, 이후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고순안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삼승할망본풀이>의 후반부 내용을 생략한 채 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8번 자료는 서순실 심방의 자료로 가장 최근에 채록된 자료이다. 서순실본 역시 ‘멩진국할마님본풀이’와 ‘동해용궁할마님본풀이’로 나누어 채록되어 있다. 그런데 서순실본의 경우 ‘멩진국할마님본풀이’에서는 간략하게 멩진국따님애기의 내력을 읊고, 이어 <마누라본풀이>의 내용이 제시된다. ‘멩진국할마님본풀이’에 오히려 <마누라본풀이>가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삼승할망본풀이〉의 내용은 ‘동해용궁할마님본풀이’에 제시된다. 구성적인 측면은 앞에서 정리한 〈삼승할망본풀이〉의 구성과 큰 차이는 없게 나타난다.

이밖에 진성기<sup>15)</sup>가 채록한 고술생본 〈할망본〉, 김매옥본 〈명진국 할망본〉, 〈저승할망본〉, 김해옥 〈할망본〉도 〈삼승할망본풀이〉의 각편들이다. 이들 각편에도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가 신격으로 좌정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하지만 김매옥본의 경우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가 ‘꽃 피우기 내기’를 통해 대립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등 간략하게 서사가 전개된다. 또한 고술생본, 김해옥본 등은 〈마누리본풀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본고의 지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진성기 채록 자료는 제외한 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sup>16)</sup>

〈삼승할망본풀이〉 각편을 정리해 본 결과 그 전승 양상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라 명명하는 제명도 다르고, 서로 섞여 있기도 하다. 더욱이 초기 채록본과 달리 최근에 채록된 자료들에서는 〈삼승할망본풀이〉가 하나의 무가가 아니라,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가 따로 제명을 갖고 구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양장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각편이 초반부 서술을 동해용궁따님애기로부터 시작하여, 그녀의 내력을 푸는데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양상이 대부분의 각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삼승할망

15)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

16) 이현정 역시 유사한 이유로 진성기 채록본을 제외한 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현정, 앞의 논문, 12쪽.

17) 물론 이러한 측면은 두 신격에 대한 무가가 따로 채록된 자료에서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가 나뉘어 채록된 자료에서는 동해용궁따님애기의 무가에서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한다면, 〈삼승할망본풀이〉 다른 각편에서도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중점적으로 서술되는 것 역시 일견 이해가 간단하다. 본래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가 변이를 통해 삼승할망, 즉 명진국따님애기의 서사로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가 하나로 합쳐지며, 지금의 서사 구성을 보이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오히려 최근에 채록된 각편들에서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은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하겠다.

이처럼 〈삼승할망본풀이〉가 통합되어 결합형 본풀이로 전승되기도 하고, 분리되어 두 개별신의 본풀이로 전승되기도 하는 양상에 대해 강정식은 형성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통합형으로 고착되지 않았다고 추론하기도 하였다. 강정식, 앞의 논문.

본풀이〉의 서사 구성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sup>18)</sup>

위의 각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①동해용왕과 서해용왕 따님이 결혼 후 마흔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관음사에 백일기도를 드리고 딸을 낳는다.
- ②어렵게 얻은 딸을 너무 극진히 길러, 딸은 불효하는 죄를 짓는다.
- ③죄를 지은 딸을 동해용왕이 죽이려 하자, 부인이 무쇠석함에 넣어 동해로 보내게 한다.
- ④동해용궁따님애기가 어머니에게 인간에 가서 무엇을 하냐고 묻자, 어머니는 생불왕이 되도록 알려준다.
- ⑤하지만 아버지의 호령에 해산시키는 방법은 듣지 못한다.
- ⑥석함은 떠다니다가 임박사에게 전해지는데, 임박사는 자식이 없어 동해용궁 따님애기에게 생불을 부탁한다.
- ⑦동해용궁따님애기는 임박사 부인을 임신시키지만, 해산시키는 방법을 몰라 겨드랑이로 아이를 낳으려다 결국 산모와 아이를 모두 잃고 만다.
- ⑧겹이 난 동해용궁따님애기는 도망쳤고, 억울한 임박사는 옥황에 신원한다.
- ⑨옥황은 임박사의 사정을 듣고, 명진국따님애기를 불러 생불왕이 되게 한다.
- ⑩명진국따님애기는 잉태시키는 방법과 출산시키는 방법을 모두 배우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온다.
- ⑪명진국따님애기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물가에 이르러 울고 있는 동해용궁따님애기를 만난다.

18) 실상 〈삼승할망본풀이〉라는 큰 자장 안에 놓이는 여러 각편들은 하나 고정된 틀로 묶기는 쉽지 않다. 제명부터 일정하게 제시되지 않고, 그 내용 역시 심방에 따라 혹은 자료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전승 양상을 갖는 〈삼승할망본풀이〉의 자료 현황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삼승할망본풀이〉 연구의 하나인 본고 역시 이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본고의 지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삼승할망본풀이〉 서사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보니 각편에 대한 심화된 논의는 차후 과제로 남기고, 본고에서는 표면적인 서사 구성을 시작으로 하여 그 내적인 의미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고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 ⑫명진국따님애기가 자신이 생불왕임을 밝히자, 동해용궁따님애기는 화를 내며 미구 매질을 한다.
- ⑬명진국따님애기는 옥황의 분부대로 하자고 하며 함께 옥황으로 오른다.
- ⑭판단하기 어려운 옥황은 꽃씨를 내어주며, 꽃이 번성하는 것으로 생불왕을 구별한다고 한다.
- ⑮동해용궁따님애기는 꽃뿌리도 하나, 가지도 하나, 순도 하나가 겨우 돌아 가는 꽃이 되었는데, 명진국따님애기는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는 4만5천6백 개로 번성하였다.
- ⑯옥황은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저승할망으로 들어서고, 명진국따님애기가 삼승할망으로 들어서게 한다.
- ⑰그러자 동해용궁따님애기는 화를 내며 명진국따님애기의 꽃가지를 꺾고, 아기가 태어나면 온갖 병에 걸리게 한다고 말한다.
- ⑱명진국따님애기는 동해용궁 따님애기를 달래며, 그녀가 모셔질 수 있게 하여 서로 화해한다.
- ⑲두 처녀는 작별잔을 나누고 헤어진다.
- ⑳명진국따님애기는 생불왕으로 좌정한다.

〈삼승할망본풀이〉 서사를 살펴보면 ①에서 ⑧까지는 동해용궁따님애기에 대한 내용으로만 전개된다. 즉, 전반부 서사를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독차지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동해용궁따님애기가 결과적으로 생불왕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드러나지만, 굳이 보조인물에 대한 서사가 길게 이어질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보조인물이라 할 수 있는 동해용궁 따님애기의 서사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정작 명진국따님애기에 대한 독자적인 서술은 ⑨~⑩에 불과하다. 이후 서술은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가 함께 등장하여 대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삼승할망본풀이〉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특징은 본풀이에서 모시는 대상신이 아님에도 동해용궁따님애기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는 그 자체가 출생부터 신격좌정에 이르는 하나의 ‘신격좌정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물론 이는 결론적으로 실패한 신격 좌정담이지만, 탄생부터 성장, 신격 좌정에 이르는 하나의 본풀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 이런 이유로 자료에 따라 동해용궁따님애기가 독립된 무가로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승할망본풀이>의 대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삼승할망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다보니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가 갖는 의미는 다소 소홀하게 연구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으로 본고를 통해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신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Ⅲ. 출산 방식을 통해 드러난 신과 인간의 변곡점

주지하다시피 <삼승할망본풀이>는 명진국따님애기가 산육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그린 신화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저승어명으로 좌정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출생과 성장, 집에서의 축출, 새로운 생불왕과의 대립과 패배, 저승어명으로 좌정까지의 일대기를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핀 것처럼 그 과정이 오히려 삼승할망보다 길게 서술되어 나타난다.

이런 동해용궁따님애기는 명진국따님애기의 대척점에 서 있는, 특히 아이들에게 질병을 주는 ‘악(惡)’한 존재지만, 그 본래적 성격은 오히려 삼승할망에 더 가깝다. 분명 동해용궁따님애기 역시 아이를 잉태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이 삼승할망의 직능 중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그녀의 역량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정상적인 출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그 자리를 명진국따님애기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단순히 자리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악신의 면모를 보이기까지 한다. 실상 동해용궁따님애기는 명진국따님애기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악인으로서의 모습을 분명

하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출산 실패하곤 겁을 먹은 채 눈물짓는 가녀린 존재일 뿐이다.<sup>19)</sup> 이런 동해용궁따님애기가 급작스레 악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은 그녀 자신의 문제이기보다는 삼승할망의 대적점에 있는 위치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즉, 동해용궁따님애기의 변화는 삼승할망인 명진국따님애기의 신격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질병신으로 변화한 동해용궁따님애기를 다독이고, 그를 관리하는 존재로 명진국따님애기가 자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삼승할망이 질병신의 우위에 서고, 더 나아가 질병신을 관리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때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질병신이자 죽음을 관장하는 자신의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산육신의 지위를 갖게 된 삼승할망의 위상을 높이고 신능을 명확히 하는데 활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sup>20)</sup>

이렇게 본다면, 동해용궁따님애기의 변화는 주체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일종의 ‘제양 옮기기’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죽어가는 신, 정확히는 새로운 신격에게 자리를 잃고 사라지는 신은 누적된 불행이나 죄악을 떠맡아 영원히 깊어지고 감으로써, 남아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sup>21)</sup> 〈삼승할망본풀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신격에 밀려 자리를 잃

19) 동해용궁 따님애기 겁난 지팡에 듣는 것이 처녀물 7의 쉬양버드냥 앞에 앉한 비새7찌 울어 간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각, 2007), 98쪽. 이후 작품 인용에 대한 표기는 편의상 작품명만 표기하도록 하겠다.

20) 〈삼승할망본풀이〉 서사로 한정한다면 등장하는 신들의 위계는 분명하게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대결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승패로 인해 삼승할망으로 좌정하는 명진국따님애기의 위상과 신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꽃 피우기 경쟁’을 통해 신들의 대립을 그리면서도, 일반적인 전개 방식과 다르게 ‘속임수’로 인한 승리로 그려지지 않는다. 명진국 따님애기의 정정당한 승리만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천지왕본풀이〉와 같은 신화에서는 패자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준다면,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명진국따님애기의 승리만 남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서사 전개를 통해 신격 간의 위상을 명확히 나누고, 이 나눔으로 신능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구삼승할망, 삼승할망, 마누라신의 위계가 수평적으로 드러난다고 본 김은희와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생’을 관장하는 신격과 함께 ‘멸’을 관장하는 신격 역시 중요하게 모셔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삼승할망본풀이〉 문맥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보면 죽음과 질병을 관장하는 신격보다, 삼승할망의 능력을 높게 묘사함으로써, 생으로서 멸을 관장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즉, 서사에 나타난 위계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은희, 앞의 논문, 73~76쪽 참조.

21) J.G. Frazer, *The Golden Bough*, 이용대 역, 『황금가지』(한겨레출판, 2003), 642쪽.

은 구삼승할망에게 ‘질병’이라는 재앙을 옮겨버림으로써 이를 대신한 새로운 산육신의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보다 우위에 있는 능력을 보임으로써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신능을 표현하는 것이다.<sup>2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해용궁따님애기가 명진국따님애기보다 작품 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이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정상적인 출산을 이끌어내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산육신이 되지 못한 것 뿐이다. 하지만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출산을 표면적인 이해가 아닌 신화적 문맥으로 읽어낸다면 전혀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생불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겨드랑이를 통해 출산을 시도했기 때문이다.<sup>23)</sup> 하지만 겨드랑이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시킬 수 없었고, 결국 해산에 실패하며 적합한 생불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출산 방식은 표면적 서술에 의해 적절한 방법을 모르는 데 기인한 무모한 시도로 그려진다. 결과적으로 출산에 실패하고 동해용궁따님애기는 도망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화적 문맥을 따져본다면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출산 방식이 결코 독특하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많은 신화 속에서 신들이 겨드랑이나 옆구리와 같이 독특한 신체 부위를 통해 출생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알영’이다. 알영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부인으

22) 실상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산육신과 질병신의 대립, 더 나아가 ‘재앙 옮기기’를 통한 선악 구조의 확립은 세계 신화와의 비교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재앙 옮기기’나 ‘산육신/질병신으로의 분리’ 화소가 여러 신화에서 유사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고지키(古事記)>에 등장하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남매이면서도 부부신이다. 이들은 부부였지만, 서로 대립하게 되면서 산육신과 질병신(죽음신)으로 분리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는 〈삼승할망본풀이〉의 산육신과 질병신의 분리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또한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릴리스신화〉 역시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브보다 먼저 아담과 부부가 되는 릴리스가 대립 이후 질병신이자 죽음의 신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삼승할망본풀이〉의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성격과 유사하다. 이런 작품들은 〈삼승할망본풀이〉와 견주어 논의함으로써 해당 신격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부분은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성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 비교는 후고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23) 아방 몸에 흰 피 석 들 열흘, 어멍 몸에 검은 피 석 들 열흘 아홉 들 열 들 준삭을 채와도 어덜로 해복시길 츠렐 물란 열두 들이 지나가난 아기 어멍 죽을 스경 돼어 간다. 동이용궁 따님애기 곱흔 지망에 은궤새 받아들던 애기어멍 누단 즈드랭이 숨숨이 궤아놓고 아기 해복시겨가니 구덕 잃고 거 일호게 돼여가난 〈삼승할망본풀이〉 98쪽.

로 계룡(鷄龍)이 낳은 자식으로 묘사된다.<sup>24)</sup> 이때 알영은 계룡의 왼쪽 ‘겨드랑이(脇)’<sup>25)</sup>를 통해 출생하게 된다. 알영이 박혁거세의 부인으로 건국신화의 주인공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특이한 출생은 신성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룡의 자식이라는 계보적 신성성과 함께 겨드랑이를 통한 출산이라는 비범성을 함께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알영의 출산 방식은 ‘신화적 출산’의 한 측면이다. 범인과는 다른 방식의 출산을 통해 태어난 인물은 타인과는 다른 비범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겨드랑이를 통한 신화적 출산의 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겨드랑이를 통한 출산으로 가장 잘 알려진 예는 고다마 싯타르타(Gautama Siddhartha), 즉 석가모니(釋迦牟尼)의 탄생이다. 석가모니는 어머니인 마야부인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통하여 출생한다. 당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속에서 사람들은 사제(司祭) 계급인 브라만과 귀족인 크샤트리아, 평민인 바이샤와 노예인 수드라, 이 네 계층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이 계급에 따라 사람들의 출생 방식도 달라, 크샤트리아의 경우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태어난다고 믿었다. 석가모니의 경우 아버지가 국왕이었기에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해 있었고, 따라서 오른쪽 겨드랑이를 통해 출생하게 된다.<sup>26)</sup>

앞에서 살핀 알영의 예처럼 석가모니 역시 겨드랑이를 통해 출생한다. 이렇게 겨드랑이를 통해 신이 출생되는 것은 일종의 ‘신화적 출생’이라 할 수 있다. 범인(凡人)과 다른 출산 방식을 통해 신격의 비범함과 특별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조금 다른 예이긴 하지만, 그리스신화에서 디오니소스(Dionysos)는 제우스(Zeus)의 넓적다리에서 키워지고 출산된다.<sup>27)</sup> 이는 인간

24) 그 날 사랑리 알영정가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겨드랑이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얼굴과 용모는 매우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닭부리와 같았다. 월성 북천에서 목욕을 시키자 그 부리가 떨어져 나갔으므로 그 시내의 이름을 발천이라 하였다. 是日 沙梁里閼英井 邊有雞龍現 而左脇誕生童女 姿容殊麗 然而唇似雞嘴 將浴於月城北川 其嘴撥落 因名其川曰撥川.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을유문화사, 2002), 69쪽 참조.

25) 번역에 따라 ‘겨드랑이’ 또는 ‘옆구리’로 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겨드랑이와 옆구리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삼승할망본풀이〉 각편들에서도 겨드랑이와 옆구리가 모두 제시되고 있어 함께 논의할 수 있다.

26) 배진달, 『세상은 연꽃 속에』(프로네시스, 2006), 20쪽.

27)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1.(웅진지식하우스, 2000), 285쪽.

과는 다른 특별한 출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을 형상화 하는 방식 중 중요한 것은 범인과는 변별되는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 출생 방식의 차별화는 주요한 변별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다른 신체 부위를 통해 출생하는 모습이 다양한 신화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상의 예들이 <삼승할망본풀이>와 조금 멀게 느껴지는 자료라면, <초공본풀이>는 같은 지역에서 전승되는 동일한 장르의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참고할 만하다. <초공본풀이>에서 주자선생에 의해 임신한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가씨는 삼 형제를 출산하게 된다. 이때 삼형제는 어머니의 음문(陰門)으로 나오지 않는다. 첫째는 오른쪽 겨드랑이, 둘째는 왼쪽 겨드랑이, 셋째는 가슴을 뚫고 출생한다.<sup>28)</sup> <초공본풀이>에서 셋부기 삼형제는 모두 비정상적인 출산 방식을 통해 태어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출생이기 때문에 더욱 비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과는 차별적인 출생 방식을 따름으로써 신이 갖는 특별함이 배가(倍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시도하는 출산 방식 역시 ‘신화적 출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의 신화들과는 달리 <삼승할망본풀이>에서의 신화적 출산은 실패로 끝난다. 오히려 ‘인간적 출생’의 방식을 시도하는 명진국따님애기가 출산에 성공할 뿐이다.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명진국따님애기가 산육신으로 좌정하고,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생산신으로서의 면모를 탈각하고 질병신으로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자신의 신적 속성을 빼앗기고, 산육신의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삼승할망본풀이>에는 두 가지 생명의 출산 방식이 나타난다. 하나는 ‘신의 출생’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출생’이다. 하지만 다른 신화들

28) 큰아들 솟아나저 흐는디 어머니 알로 나저 흐뉘 아버님이 아니 보아난 ㄱ뚝질이어. 어머니 ㄴ 단 ㄱ드랭이 허우뜰어 큰아들 솟아나고, 여레드레 큰당흐난 셋아들 솟아나저 알로 낳저 아버님이 못내본 ㄱ뚝이라, 우리 성님도 아니 나와난 질이어 윈 ㄱ드랭이 허우뜰어 솟아나고, 수무드레 죽은아들 솟아나저 흐니 알로 낳저 아버님이 못내본 ㄱ뚝이라, 우리 삼성제 솟아나저 흐니 어머니 가심인덜 아니 답답하리야. 어머니 애스 가심 허우뜰어 솟아나, 초사흘 당흐니 모욕 상잔 내어놓고 몸 모욕을 시기니 어머니이 내어준 상잔이 뉘읍네다. 현용준, 앞의 책, 141쪽.

과는 달리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신화적 출생이 실패하고 미는 것이다. 이때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시도한 신화적 출산이 실패한 것은 몇 가지 이유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임박사와 임박사의 자식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시도한 신의 출산 방식을 통해서도 적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출산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명진국따님애기의 성공과 대척적으로 실패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신화 향유층들의 신화적 출생에 대한 회의가 이유일 수 있다. 출생에 대한 인류의 합리적 사고가 자리 잡으며 신화 속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출생에 대한 회의로 인해 신화가 변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신화 속에서 그려진 신화적 출생에 대한 의문을 통해 점차 인간적 출생의 방식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9)</sup>

셋째, 삼승할망은 신의 출생을 돕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출생을 돕는 신이기 때문이다. 만약 삼승할망이 신들의 출생을 돕는 신이었다면, 동해용궁따님애기의 방식이 적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삼승할망의 핵심적 직능은 인간의 아이를 잉태시키고, 건강하게 키우는 데 있다. 그래서 신들의 출생이 아닌 인간의 정상적인 출산 방식을 따라야만 했고, 이런 이유로 동해용궁따님애기가 대립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다.

이들 세 가지 이유 중 어느 하나만을 통해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동해용궁따님애기의 패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세 가지 이유 모두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신의 출생이 실패하고, 인간의 출생이 성공하는 것은 신성 탄생의 시대에서 평범한 인물의 탄생으로의 시간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신화에서는 신화적 출생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중요한 존재로 성장하고 활약해야 한다. 하지만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신화적 탄생이 아닌 범인(凡人)의 탄생으로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삼승할

29) 김현선은 옆구리를 뜯어 아이를 태어나도록 하는 것은 신의 질서에서는 가능하지만, 인간의 합리적 성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현선, 앞의 논문, 119쪽.

망본풀이》는 ‘신의 출생’에서 ‘인간의 출생’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신화인 것이다.

동해용궁따님애기가 특별한 존재를 출산시키는 신이라는 점은 ‘꽃 피우기 내기’를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명진국따님애기는 하나의 뿌리에서 4만5천6백 가지를 번성시킨다. 놀라운 생산력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동해용궁따님애기는 단 하나의 가지만을 번성시킬 뿐이다. 이러한 차이가 서사 문면을 통해서 생산 능력의 차이로 제시된다. 그래서 명진국따님애기가 생불왕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많은 생산은 역으로 그 회소성 문제에서는 가치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 많다는 것은 단 하나의 존재로 특별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명진국따님애기는 넘치는 생산력으로 범인들을 무수히 만들어 내는 생산신으로서의 능력을 여실히 보이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오로지 하나의 가지를 만들어 낸다. 하나의 가지만을 만들어 내는 것은 표면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의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인간과 다른 특별하고 비범한 ‘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은 인간과 차별되는 특별함과 비범함, 그리고 회소성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성 탄생의 시대가 범인 출산의 시대로 이행되며,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신의 출생보다 명진국따님애기의 인간의 출생 능력이 더욱 필요했고, 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30)</sup>

단순히 악신과 선신의 대결, 질병신과 산육신의 대립으로만 <삼승할망본풀이>를 읽어내고자 한다면, 서사를 긴요하게 연결 짓고 있는 신화소들에 대한 이해에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동해용궁따님애기는 능력이 부족해서 생불왕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고만 파악하기는 서사 내에서의 비중이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출생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행하여 서술된 신의 출생을 담당하는 존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신의 출생에

30) 그렇기 때문에 동해용궁따님애기가 피운 하나의 가지마저도 시들어 버린다고 이해할 수 있다.

대한 서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초반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삼승할망본풀이〉의 전개 양상이 다른 신화들과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즉, 〈삼승할망본풀이〉는 인간의 출생에 대한 기원적 서술을 위해 신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신의 출생을 담당하던 동해용궁따님애기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출생을 담당하는 명진국따님애기로의 이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의 출생을 담당하던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인간의 출생을 담당하는 명진국따님애기에게 출생신으로서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질병신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이러한 과정의 서술을 통해 인간의 출생과 성장을 담당하는 산육신의 내력과 직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IV. 나오며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성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일반적인 서사무가와 달리 대상신인 명진국따님애기보다 그 반대에 서 있는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술이 길게 이어져 있는 특성을 보인다. 전체적인 전개에 있어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가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는 하나의 신격좌정담으로서의 구성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하다. 때문에 정작 〈삼승할망본풀이〉의 주인공인 명진국따님애기는 그 내력이 간략하게만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궁따님애기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녀의 출산 방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동해용궁따님애기는 명진국따님애기와 달리 겨드랑이로 출산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만다. 이 실패 때문에 생불왕이 되지 못하고 저승어명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출산 방식은 여러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의 출생’과 관계

가 있다. 같은 지역에서 전승되는 <초공본풀이>를 비롯하여, 알영, 석가모니의 출생 등에서 동해용궁따님애기와 같이 겨드랑이로 탄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신화적 출산의 면모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삼승할망본풀이>는 인간의 출생을 담당하는 산육신에 대한 서사이다. 그렇다보니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아닌 명진국따님애기가 산육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삼승할망본풀이>는 인간의 출생을 담당하는 산육신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출생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신의 출생부터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의 출생에서 인간의 출생으로의 이행이 담겨 있는 신화가 바로 <삼승할망본풀이>인 것이다. 그래서 <삼승할망본풀이>는 일반적인 신화 서술 방식과 달리 대상신이 아닌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서사가 초반부에 길게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신격에 대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산육신인 명진국따님애기뿐만 아니라 동해용궁따님애기 역시 중요한 신으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동일하게 생산신적 모습을 보이다가 대립 이후 서로 대척점에서, 한 편은 생산을 한 편을 죽음을 담당하게 되는 구조는 독자적인 서사가 아니다. 산육신과 질병신의 대립을 통해 서사가 전개되는 양상은 세계 여러 신화 속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를 통해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두 신격의 관계와 의미를 도출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신화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 작업은 후고를 통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삼승할망이 등장하는 <마누라본풀이>와의 관계 역시 후고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의 전승 양상을 밝히는 부분에서도 제시했듯이 <삼승할망본풀이>는 그 자체의 전승에 있어서도 모호함이 있을뿐더러, 여기에 <마누라본풀이>가 또 존재함으로써 각각의 무가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제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차후 과제로 남기고 본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_\_\_\_\_,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1999.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_\_\_\_\_,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_\_\_\_\_,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_\_\_\_\_,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풍속무음』 下,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 上卷,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上, 동문선, 1991.

2. 논저

강정식,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발표논문, 2003.  
 권복순,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인물의 기능과 그 의미 - 신적차지하기 경쟁신화 소를 중심으로 -』, 『어문학』 116, 한국어문학회, 2012.  
 김은희, 『제주도 <불도맞이>와 서울 <찬궁불사맞이> 비교』, 『한국무속학』 30, 한국무속학회, 2015.  
 김인희, 『마미배송굿』, 『한국문화인류학』 41-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8.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배진달, 『세상은 연꽃 속에』, 프로네시스, 2006.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연구사, 1930.  
 심재관 편, 『석가와 미륵의 경쟁담』, 씨아이알, 2013.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 <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2006.  
 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1999.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_\_\_\_\_,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 『이화어문논집』 14, 이화어문학회, 1994.  
 \_\_\_\_\_,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 - 불도맞이 및 생불할망본풀이와 관련하여-』, 현용준박사 화갑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1, 웅진지식하우스, 2000.
- 이현정, 『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 - <할망본풀이>와 <일췌당본풀이>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현승환, 『삼성할망 본풀이에 나타난 도민의식』, 『제연 창립 20주년 기념회』 7, 제주대학교 제주도문제 연구회, 1985.
- \_\_\_\_\_,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97.
- Frazer, J.G., *The Golden Bough*,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2003.



A STUDY on the NARRATIVE COMPOSITION  
and MYTHICAL SIGNIFICANCE  
in 〈SAMSEUNGHALMANGBONPURI〉

– FOCUSED on ‘BIRTH MOTIF’ –

Jeong, Jeho\*

It is the study which examined about narration formation way of 〈Samseunghalmangbonpuri〉. In 〈Samseunghalmangbonpuri〉, East Sea Dragon King’s daughter’s narration is more longer than Myeongjingu’s daughter. We’re able to estimate from her childbirth way that why East Sea Dragon King’s daughter deals with more seriously in 〈Samseunghalmangbonpuri〉. East Sea Dragon King’s daughter failed that she tried to give birth to a baby from her armpit different from Myeongjingu’s daughter. However, East Sea Dragon King’s daughter’s childbirth way is related with “the God’s birth” from some kinds of myths. We’re able to see the feature that gave birth to a baby from her armpit like East Sea Dragon King’s daughter from Ayeong, Buddha’s birth including 〈Chogongbonpuri〉 which hands down in the same area. Thus, East Sea Dragon King’s daughter showed a strong appearance of “The God’s birth”. However, 〈Samseunghalmangbonpuri〉 is about the Godbody that takes charge of human’s birth. That’s why Myeongjingu’s daughter was able to take possession of The God of bear and raise.

---

\*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

Eventually, it deals with “the God’s birth” that is a origin of birth for giving an explanation about The God of bear and raise’s origin that takes charge of human’s birth. It is <Samseunghalmangbonpuri> that the myth includes from God’s birth to human’s birth way. So, East Sea Dragon King’s daughter’s narration take a long possession in the opening part different from usual myth narration way in <Samseunghalmangbonpuri>.

**Keywords :** <Samseunghalmangbonpuri>, Narrative Composition, Birth Motif, God’s birth, Mythical Birth



\*이 논문은 2016년 1월 24일 투고되어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6년 2월 16일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임